

사연있는 인형을 활용한 반편견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An Anti-Bias Education Program Using Persona-Doll :
Effects On Children's Handicap-Acceptance Attitudes

최 연 자**

Choi, Youn Ja

이 영 석***

Lee, Yeung Su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differences by gender and experimental treatment in the effectiveness of an anti handicap-bias program using a persona doll. The subjects were 60 kindergarten children of middle socio-economic status in Kyunghi Province, S. Korea. Treatment effects showed that the handicap-acceptance attitude scores of the experimental group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handicap-acceptance attitudes between boys and girls. Young children perceived the persona doll as a soul and a playmate and showed close attachment to it. They recognized the story of the persona doll as fact rather than fiction.

Key Words : 반편견 교육(Anti-Bias Education), 사연있는 인형(Persona-Doll), 장애수용태도(Handicap-Acceptance Attitudes).

* 본 논문은 2000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청구 논문의 일부임

** 광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겸임교수

***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I. 서론

세계는 정보통신 및 교통의 발달로 어느덧 정보공유의 동시성을 경험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국가간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세계 추세 속에서 오늘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과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21세기는 세계화로 인한 개방과 다양성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고, 하나의 지구촌 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해있다. 이것은 상호의존의 지구촌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시민적 자질로서 자신에 대한 정체감과 아울러 타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자기와는 다른 생활양식, 태도, 가치체제, 문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1930년대에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의 영향은 다민족주의, 다문화주의의 거시적 차원을 넘어 그동안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무시당하던 계층의 문제, 인종의 문제, 여성의 문제, 빈곤의 문제에 이르기 까지 관심을 가지며 사회적 모순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이광규, 1998). 이러한 노력은 인권옹호적, 인권투쟁적 양상을 띄며 교육분야에도 영향을 주어 다문화 교육, 반편견 교육이란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냈으며, 세계각국은 다른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편견없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기 위해 반편견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는 오랜 세월 단일 민족국가 체제를 유지해옴으로 인해 다문화 이해 교육과 편견으로 인한 정체성의 문제에 대하여 소홀히 여겨 왔다. 최병권(1994)은 한국의 세계화를 막는 요인으로 다양성에 대한 공포, 단일성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지적하였는데, 사실

상 우리 사회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나'와 다름을 인정하려들지 않는 편협성과 정상이 아닌 것, 예외적인 것을 하찮게 보는 편견적 태도는 우리 나라가 세계화에 발맞춰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반편견 요소 중 하나인 장애에 대한 편견과 관련하여 이광규(1998)는 유교문화가 물려준 가치관 중 '중용의식'은 인간의 행동을 신중하고 바르게 나아가게 하는 장점을 지닌 반면, 좌우의 변두리에 있는 것을 경시하고 비정상적인 사람, 불구자가 된 사람을 인간 이하로 생각하는 의식을 조장하였다고 진단하며 우리가 지양해야 할 반편견적 의식의 하나로 반장애주의(anti-handicappism)를 지적하였다

이처럼 우리사회가 장애인에 대하여 갖는 편견은 예로부터 '병신' '소경' '귀머거리' '절름발이' 등과 같은 지칭으로도 알 수 있고, 마치 그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관심하거나 쓸모없고 무능한 사람으로 규정지어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서도 들어난다. 그러나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른들의 의식속에 잠재되어 있는 고정관념과 사회적 편견들이 있는 그대로 어린이들에게 전해지고 유아의 자아정체감과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sparks & force, 1989). 따라서 우리나라도 21세기의 특징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은 물론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하여 보다 어린 시기부터 반편견 교육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Derman-sparks와 The ABC task forces(1989)는 반편견 교육과정의 목표를 모든 아이들이 다양성을 수용하는 생각을 가지고 상호작용하

며, 편안한 감정이입을 발달시키고 자신있는 폭넓은 자아정체감을 구성하게 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편견에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반편견 교육실천을 위한 방법으로 '사연있는 인형(Persona doll)'과 문학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아 교육 현장에서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총체적 언어, 문학적 접근에 의한 통합 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 반편견 이슈를 다룬 그림책은 간접자료로서 종종 활용되어 왔으나 사연있는 인형은 아직 낯설고 적용하는데 있어 어색할 뿐만 아니라 제작과 구입에 많은 제한이 따르므로 교사들이 활용하기를 꺼리는 실정이다. 하지만 Derman-sparks와 그의 동료들은 반편견에 대한 태도를 발달시키고 편견에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무엇보다 사연있는 인형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였고, 이연승(1999)은 사연있는 인형은 유아들로 하여금 인형의 사연에 신체적, 감정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때문에 유아들이 인형의 느낌을 공유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기술을 발달시키며 타인에 대한 존중심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사연있는 인형은 그 자체로서도 매력적이어서 유아들로 하여금 강한 흥미와 애착을 끌어낼 수 있고, 간접자료들이 갖는 한계를 보충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좋은 매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장애유아에 대한 일반학교에의 통합교육이 강조되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장애유아의 일반 유치원 입학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소수이긴 하지만 장애유아의 일반 유치원 입학이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통합된 환경에서 비장애유아가 장애유아와의 접촉을 통해 두려

움이 감소되고, 익숙해짐으로 하여 장애유아에 대한 호감을 갖게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예측(Gottlieb, corman & Curci, 1986)과는 달리 장애유아가 비장애유아의 놀이동료로 거의 선택되지 않을 뿐 아니라(Guralnick & Groom, 1987) 언어적 학대까지 받는 상황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단순한 물리적 통합은 장애유아에게 있어 더욱 제한된 교육환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장애유아들이 장애유아를 이해할 수 있는 사전준비 없이 통합을 실시했을 때 장애유아에 대한 수용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정적 태도와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말해준다(송현미, 1998). 이에 따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표로서 장애유아에 대한 비장애유아의 태도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통합교육의 성공여부는 비장애유아의 장애유아에 대한 수용태도가 결정적 요인이라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Esposito & Peach, 1983; Esposito & Reed, 1986; Fortini, 1987; Peterson, 1982).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그동안 유아를 대상으로 장애수용태도 변화에 관련된 연구들이 최근들어 활발히 시도되고 있으나 주로 장애에 관련된 수기나 정보제공, 강연, TV프로그램 시청 등 교사에 의해 제공된 정보에 국한되거나(이장순, 1992; 정선화, 1992; 송현미, 1998) 그림책을 매체로 한 구조화된 집단활동(노은미, 1996; 하승연, 1996; 김현정, 1997; 이현숙, 2000) 등 간접경험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Derman-sparks와 The ABC Task Forces가 강조한 반편견교육의 실천을 위한 4가지 접근방법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 관심의 대상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반편견 교육과정 접근방법 중 사연있는 인형(persona-doll)을 활용한 반편견교육이 비장애유아의 장애수용태도

증진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아봄으로써 반편견교육 매체로서 사연있는 인형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해 보는 것이다. 나아가 유치원 현장에서 반편견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와 같은 목적아래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사연있는 인형을 활용한 반편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유아와 통제집단 유아간에 장애수용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사연있는 인형을 활용한 반편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유아의 성에 따라 장애수용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사연있는 인형을 활용한 반편견교육 프로그램 처치후, 실험집단 유아들의 인형에 대한 반응 및 전개되는 자발적 놀이의 유형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S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2학급의 유아 60명이다. 대상 유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중류층으로 비슷하며, 각반 담임교사의 경력은 실험집단 6년, 통제집단 7년이다. 두 집단 유아의 평균월령은 71.8개월이며, 남녀별 사례수와 월령은 다음과 같다.

〈표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성, 사례수, 평균월령

구 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남	여	계	남	여	계
사 례 수	15	15	30	15	15	30
평균월령	71.7	71.3	71.4	71.5	72.1	71.8

2. 실험설계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사연있는 인형을 활용

한 반편견교육 프로그램이며, 종속변인은 비장애유아의 장애수용태도이다.

본 연구의 실험설계를 간략하게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실험설계

집 단	사전검사	프로그램처치	사후검사
G ₁	Opretest1	X	Oposttest2
G ₂	Opretest1	---	Oposttest2

- 1) G₁ : 실험집단
- 2) G₂ : 통제집단
- 3) X : 사연있는 인형을 활용한 반편견 프로그램
- 4) Opretest1 : 장애수용태도 사전검사
- 5) Oposttest2 : 장애수용태도 사후검사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장애유아에 대한 비장애유아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Favazza와 odom(1996)이 제작한 「유아용 수용척도」(Acceptance Scale for Kindergartens : ASK)와 Esposito와 Peach(1983)의 Primary Student Survey of Handi-

capped Persons(PSSHP)를 참고로 김현정(1997)이 수정·첨삭하여 제작한 질문지를 본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68이었다.

본 질문지의 구성은 크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념, 두려움, 능력, 회피, 유사점)을 알아보는 범주와 장애를 가진 친구와의 상호작용 의도를 묻는 2개의 범주로 나뉘어 있고, 유아들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모든 문항이 폐쇄형 질문(예, 잘 모르겠어요, 아니오)과 개방형 질문(왜 그렇게 생각하니?)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채점은 장애를 가진 친구와의 상호작용 의도를 묻는 문항은 긍정적 반응(네, 고개를 끄덕임)은 2점, 중립적 반응(잘 모르겠어요, 무반응)은 1점, 부정적 반응(아니오, 고개를 가로저음)은 0점으로 처리하였고, 반대로 회피나 두려움을 묻는 문항은 긍정적 반응은 0점, 중립적 반응은 1점, 부정적 반응은 2점으로 계산하여 최저 0점에서 최고 18점을 획득할 수 있다.

4. 실험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반편견 교육과정 요소 중 장애 교육을 위하여 사연있는 인형(persona-doll)을 활용한 선행연구나 체계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없어 Derman-Sparks와 The A.B.C. Task Forces (1989)의 반편견교육 이론과 Whitney(1999), 김혜선(1999)의 사연있는 인형(personal-doll)을 이용한 현장적용 사례 및 이연승(1999)의 '반편견 교육에 사연있는 인형(persona-doll) 사용하기' 현장연구 등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연구 목적 및 연구기간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유아교육 전문가 1인과 유아교육 전공자로

써 유치원 경력 20년 이상인 교사 2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아 사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및 실험에 사용한 인형은 다음과 같다.

1) 구성

· 이야기 창안하기

장애를 나타낼 수 있는 인형을 선택하고 인형의 신체적 특징에 알맞게 사연을 창안하였다. 어린이들이 인형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놀이가 전개·확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형의 가족배경, 좋아하는 놀이 등 중요한 정보를 1~2개정도 첨가하여 교사가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짧게 구성하였다.

· 1단계 : 소개하기

교사가 인형을 초대하게 된 동기를 유아들에게 설명하고 인형의 사연 즉, 창안한 이야기를 들려준 뒤 인형에게서 더 알고 싶은 점이나 궁금한 점을 유아들이 직접 인형에게 질문하도록 함으로써 유아들이 인형을 친구로 여겨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2단계 : 문제제시 및 감정 공감하기

인형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유아들이 인형의 입장에서 인형이 느끼는 기분을 공감해 보고 무심코 한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언어로 표현해보게 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확인해보도록 하였다.

· 3단계 : 토의와 문제해결과정

유아 자신을 인형이 당면한 문제상황에 놓고 문제해결과정 즉,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그 방법을 평가하고, 모두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불공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과 남을 위해 지지해 주는 비판적 생각과 기술을 어떻

게 사용할 수 있는지 습득하도록 하였다.

· 4단계 : 해결하기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을 보여주고 인형으로 하여금 대안적 기술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2) 사연있는 인형(persona-doll)을 활용한 반편견교육 프로그램

<표 3> 사연있는 인형을 활용한 반편견교육 프로그램

주	활동명	장애영역	반편견 관련주제	시간
1	견지못하는 명호	지체장애	장애, 다른 사람이해, 편견에 대응하기	15분
2	듣지못하는 영주	청각장애	장애, 다른 사람이해 의사전달방법	10분
3	천하장사 인수	정신지체	"	15분
4	보지못하는 주희	시각장애	"	15분
5	헬렌켈러	복합장애	재능, 다른 사람이해, 장애, 편견에 대응하기	15분

3) 프로그램에 사용된 인형과 소품

프로그램에 사용된 인형은 장애영역별로 한 개씩 5주간 총 5개의 인형을 사용하였다. 사연 있는 인형의 선정과정에서 이은화·이경우(1987)의 유아의 동성 선호성이 3세경부터 나타나고, 동성의 또래가 성역할 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참고하여 유아의 동성에 대한 선호도가 프로그램 효과에 주는 오염을 줄이기 위해 성인인형 1개, 유아또래 남아인형 2개, 여아인형 2개로 성비를 균등하게 선정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에 투입할 인형을 구입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한 결과, 시중에 나와있는 인형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고, 대부

분 여아인형이었으며 아기모습을 하거나 공주처럼 예쁜 바비인형 시리즈 밖에 없어 연구도구로 부적절하였다. 따라서, 지체장애 사연을 가진 인형은 보장도구의 특수성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정신지체, 시각장애, 청각장애, 복합장애 사연을 가진 인형은 인형극회에서 대여하여 본 연구자가 사연에 알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사연있는 인형이 사용하는 보장구로는 휠체어, 워커, 안경, 환지팡이, 보청기, 안내견, 점자프린트물 등이 사용되었다.

5. 실험절차

1) 교사교육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를 포함하여 경력 6년의 담임교사 한 명과 유아교육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보조교사 한 명이 참여하였다. 담임교사는 본 연구자와 함께 반편견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현장적용 사례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였으며 프로그램 처치에 따른 연수를 3회 받았고, 보조교사는 유아들의 자발적 놀이 장면을 사진, 녹음, 관찰, 기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3회 연수를 받았다.

2) 사전검사

두 집단의 동질성 확인을 위해 실험처치에 들어가기 전 9월 7일, 8일 양일간에 걸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자는 본 연구자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현장경험이 있는 대학원생 2명이 참여하였다. 검사에 들어가기 전 검사자들은 일주일 전부터 교실에 들어가 유아들과 생활하며 충분히 라포를 형성하였다. 검사는 각각 조용한 교실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인당 소요시간은 5분~8분이었다. 먼저, 연

습문항을 통해 질문에 대한 응답방법을 익힌 뒤 본 문항을 질문하였다. 폐쇄적 질문에 대한 응답은 유아의 반응에 따라 교사가 ○, ×, ?로 기록하여 점수화하였고 개방적 질문에 대한 응답은 모두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3) 프로그램 처치

본 프로그램은 2000년 9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기간동안 실험, 통제 두 집단은 생활주제 ‘교통과 생활’이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연구자는 통제 집단 교사에게는 본 연구변인에 영향을 미칠 반편견교육에 관련되는 요인은 통제하도록 협조를 구하였고, 실험집단에만 프로그램을 처치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연구자에 의해 매주 월요일 일과계획하기 및 새교구 소개하기 시간에 대집단으로 모여 1주일에 인형 1개씩 누가적으로 투입·실시되었는데, 이는 자유선택 활동시간에 자발적 놀이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바로 전시간을 선택한 것이다. 프로그램 처치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사연있는 인형(persona-doll)의 투입순서에 따라 나타날지도 모르는 특정성에 대한 효과를 상쇄(counterbalancing)하기 위하여 남자인형, 여자인형, 남자인형, 여자인형, 어른인형의 순서로 투입하였다.

둘째, 전개되고 있는 주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매체의 투입으로 유아들이 혼선을 빚거나 과도한 흥미 및 동기유발로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신기효과(novelty effect)를 막기 위하여 교통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과 안전에 대하여 학습이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여 교통사고로 지체장애인이 된 명호(7세, 남자 어

린이 인형)를 먼저 투입하여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인형이 안고 있는 사연에 동기화 되도록 하였다.

셋째, 사연있는 인형(persona-doll)을 소개할 때, 유아들이 그동안 교실에서 흔히 가지고 놀던 아기인형들과 구분하여 인격을 갖춘 친구로 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몇 가지 약속을 정하였다. 즉, 인형이 학급에 있는 동안 모든 활동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과, 유아들과 토의하여 역할영역이 아닌 특별한 장소에 놓아두고 친구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놀고 싶을 때 데려올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월요일에 인형을 소개한 뒤, 본 연구자와 담임교사는 유아들이 인형을 활용하여 상호 작용하거나 자발적 놀이가 전개되는 장면을 녹음, 사진, 관찰기록 하였으며 문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관심있는 소수의 유아들과 혹은 회상하기 시간을 통하여 전체 유아들과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놀이의 확장을 위해 전이활동을 구성하여 제공하였다

4) 사후검사

실험처치가 끝난 1주일 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검사자에 의해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기간은 10월 26, 27 양일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개방적 질문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고 많아져 소요시간은 1인당 7분~10분이 소요되었다.

5) 자료분석

연구문제 1, 2에 대하여는 사전·사후검사의 결과를 정리한 후, SPSS PC 10.0을 사용하여 집단간의 차이와 실험집단내의 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 3

에 대하여는 유아들과 인형의 놀이장면을 촬영, 녹음, 관찰기록한 자료와 유아들의 활동결

과물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연구문제 검증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주요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집단별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사전검사

		N	M	SD	df	t
장애수용태도	실험집단	30	7.07	3.69	58	.11
	통제집단	30	7.17	3.71		
장애인에 대한 인식	실험집단	30	3.43	2.74	58	1.09
	통제집단	30	4.20	2.70		
장애를 가진 친구와의 상호작용의도	실험집단	30	3.63	2.30	58	-1.31
	통제집단	30	2.97	1.56		

〈표 4〉와 같이 집단별 장애수용태도 사전검사 결과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장애수용태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58)=.11, p>.05$). 또한, 하위항목 즉, 장애인에 대한 인식($t(58)=1.09, p>.05$)과 장애를 가진 친구와의 상호작용의도($t(58)=-1.31, p>.05$)에서도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두 집단은 동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험집단내 성에 따른 장애수용태도 사전점수 결과에서 남자유아와 여자유아의 장애수용태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28)=-.59, p>.05$). 장애인에 대한 인식($t(28)=.20, p>.05$)과 장애를 가진 친구와의 상호작용의도($t(28)=-1.20, p>.05$) 역시 통계적

으로 무의미한 차이를 나타냄으로 두 집단은 동질하다 할 수 있다.

〈표 5〉 실험집단내 성에 따른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사전검사

		N	M	SD	df	t
장애수용태도	남	15	6.67	2.90	28	-.59
	여	15	7.47	4.42		
장애인에 대한 인식	남	15	3.53	2.95	28	.20
	여	15	3.33	2.60		
장애를 가진 친구와의 상호작용의도	남	15	3.13	1.60	28	-1.20
	여	15	4.13	2.80		

1. 연구문제 1의 분석결과

연구문제 1은 사연있는 인형을 활용한 반편견 교육을 받은 실험집단의 유아와 통제집단 유아 간에 장애수용태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검증 결과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집단별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사후검사

		N	M	SD	df	t
장애수용태도	실험집단	30	14.57	3.41	58	-6.38***
	통제집단	30	7.77	4.74		
장애인에 대한 인식	실험집단	30	7.53	2.65	58	-4.59***
	통제집단	30	4.07	3.17		
장애를 가진 친구와의 상호작용의도	실험집단	30	7.03	1.35	58	-7.19***
	통제집단	30	3.70	2.15		

단, *** $p < .001$

실험결과, 실험집단 유아의 장애수용태도 평균 14.57과 통제집단 평균 7.77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58)=-6.38, p<.001$). 또한, 하위항목 즉, 장애인에 대한 인식($t(58)=-4.59, p<.001$)과 장애를 가진 친구와의 상호작용 의도($t(58)=-7.19, p<.001$)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으로서 사연있는 인형을 활용한 반편견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장애수용태도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들의 구체적인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개방적 질문에 따른 반응을 요약해 보면, 먼저,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서 사전검사에서는 두집단 모두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고 장애인은 무능하며 장애가 전염된다는 두려움을 나타낸 반면,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의 경우, 장애에 대한 명확한 정의(낮지 않는 병),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명명(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증가하였고 반대로 두려움이 감소되었다. 또한, 장애친구와의 상호작용 의도에서도 사전검사에서는 대부분 시각적으로 판별되는 장애를 들어(보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놀 수 없다고 반응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대체수단(수화를 하면서, 입모양을 천천히 움직이며, 점자책을 빌려다 주며)을 이용하거나 구체적인 놀이방안(휠체어를 밀어주며, 장난감을 손에 쥐어주며, 그림책을 읽어주며)을 제시하여 놀 수 있다는 반응이 증가하였다.

2.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

연구문제 2는 사연있는 인형을 활용한 반편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유아의 성에 따라 장애수용태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 검증결과를 제시하면 표 7, 표 8과 같다.

<표 7> 실험집단내 성에 따른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사후검사

		N	M	SD	df	t
장애수용태도	남	15	13.80	3.38	28	.22
	여	15	15.33	3.37		
장애인에 대한 인식	남	15	6.93	2.60	28	.22
	여	15	8.13	2.64		
장애를 가진 친구와의 상호작용의도	남	15	6.87	1.46	28	.51
	여	15	7.20	1.26		

<표 8> 시각장애를 가진 친구와의 상호작용 의도

		N	M	SD	df	t
시각장애 친구와의 상호작용	사전 검사	남	15	.60	28	.66
	여	15	.40	.74		
사후 검사	남	15	1.07	1.03	28	-2.42*
	여	15	1.80	.56		

단, * $p<.05$

<표 7>, <표 8>에 의하면 실험집단내 성에 따른 장애수용태도 사후검사 결과에서 남자유아와 여자유아의 장애수용태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28)=.22, p>.05$). 하위영역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t(28)=.22, p>.05$)과 장애를 가진 친구와의 상호작용의도($t(28)=.51, p>.05$) 역시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친구와의 상호작용 의도의 하위항목 중 시각장애를 가진 친구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남자유아의 평균 1.07과 여자유아의 평균 1.8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28)=-2.42, p<.05$).

3. 연구문제 3의 분석결과

연구문제 3은 사연있는 인형을 활용한 실험집단 유아들의 인형에 대한 반응 및 자발적 놀

이의 전개유형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자와 담임교사, 보조교사가 유아들의 사연있는 인형과의 놀이장면을 촬영, 녹음, 관찰기록한 자료와 전이활동의 결과물들을 분석한 결과 유아들은 초기에는 단지 인형일 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어색하게 반응하거나 상호작용을 힘들어 하였으나 차츰 놀이가 확장·전개되면서 사연있는 인형의 이야기를 ‘만든 이야기’가 아닌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형을 일반 장난감이 아닌 살아있는 인격체로 대하며 놀이동료로 선택하는 등 깊은 애착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유아가 인형의 사연을 사실로 수용하고, 대체기술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하고 있다.

장 면 : 아침 등원시간에 유아 1이 소지품을 정리하고 곧장 영주(청각장애 인형)에게 다가온다.

유아 1 : “영주야! 나 수화 배웠다. 잘 봐!”하며 ‘나는 너를 사랑해’를 수화로 표현한다.

<사례 2> 유아가 인형의 문제, 즉 정신지체인 인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작용하고 있다.

장 면 : 유아 2가 언어놀이방에서 인수(정신지체 인형)에게 책을 읽어준다.

유아 2 : 오빠! 여기 앉아 있어. 내가 책 읽어 줄게 (인형을 소파에 앉힌후, 책꽂이에서 책을 한 권 꺼내온다.)

유아 2 : 오빠! 내가 책을 읽어줄테니까 잘 들어? (책을 인형이 잘 보이도록 들고 읽어 나가다가 인형이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한다.) 재미있어? (조금 사이를 두고) 집중해! 알았지? (계속 읽어나간다.)

<사례 3> 유아가 인형의 입장을 조망해 보고 어려움을 돕기 위해 대안을 찾아주고 있다.

장 면 : 유아 3이 명호(지체장애 인형)의 손을 잡고 휠체어 바퀴를 굴려주며 논다.

유아 3 : 명호야! 팔 아프지? 내가 도와 줄게 (한참 물고 다니다 시각장애 인형 주희의 안내견 복실이를 데려온다.)

유아 3 : 복실아! 너 명호 좀 도와줘. 이렇게 (복실이 목에다 끈으로 명호의 휠체어를 연결한다) 어때, 손 안 아프지? 복실아 착하다.(유아3이 복실이를 끌고 복실이 명호를 끌고 논다.)

<사례 4> 유아가 인형의 특성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양보하고 있다.

장 면 : 2명의 유아가 영주(청각장애 인형)와 교구놀이를 한다. 유아 4가 영주를 무릎에 앉히고 영주의 손을 잡고 유아 5와 그룹게임의 순서를 정하기 위해 가위, 바위, 보를 한다. 유아 5가 바위를 낸다.

유아 4 : 야! 영주가 이겼다 (인형의 손을 흔들며 좋아한다)

유아 5 : 내가 왜 바위를 냈는지 알아? 영주는 보 밖에 못 내거든 (웃으며 영주가 먼저 게임을 하도록 양보한다.)

<사례 5> 유아들이 인형과의 감정이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장 면 : 조작놀이방에서 여러 가지 도형모양을 가지고 기억게임을 하고 있던 3명의 유아들이 주희(시각장애 인형)가 앞을 볼 수 없어서 함께 놀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유아 6 : 주희도 끼워주자.

유아 7 : 주희는 아무것도 못 보는데 어떻게 끼

워쥬?
 유아 8 : 주희가 손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줄까?
 유아 6 : 어떻게? (잠시 생각하다가) 점자로?
 유아 7 : 그래, ‘압정으로 콕콕’ 영역에서 모양 종이를 놓고 점자처럼 만들어 주면 되잖아.
 유아 8 : 그래, 모양은 내가 그려서 오릴게
 유아 6 : 나는 압정으로 모양을 찍을게
 유아 7 : 나도.

<사례 6> 유아들이 인형을 동료로 수용하고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돕고 있다.

장 면 : 시각장애 인형 주희와 안내견 복실이 소개된 후 조형영역에서 3명의 유아가 폐품함에서 빈 박스와 테이프, 수수깡 등을 꺼내온다.
 유아 9 : 야! 주희가 우리 반에 있으려면 의자가 있어야 해.
 유아10 : 그래, 복실이 집도.. 내가 복실이 집을 만들래.
 유아11 : 야! 나도 하자(두사람 옆으로 끼어든다).
 유아 9 : 주희야, 너 여기 잠깐 앉아 있어(주희를 책상 위에 앉힌다.) 정연아! 스카치 테이프 좀 가져와.
 유아11 : 야! 주희 지팡이 걸어놓는 못도 있어야 해.
 유아10 : 수수깡으로 하자.
 유아 9 : 복실이 밥그릇도 있어야지(주희 의자, 복실이 집, 지팡이 걸이, 밥 그릇 등을 만들어 인형을 앉힌다.)

<사례 7> 유아가 인형에 대하여 깊은 애착을 형성하였다.

장 면 : 실험기간이 끝나갈 무렵, 투입되었던

장애인형들이 1주일 후 장애인 복지관으로 돌아간다고 교사가 이야기하자, 유아들이 몹시 서운해하였다. 또, 장애인 복지관으로 돌아간 후 인형들의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였다.
 유아12 : 거기에 가면 누구랑 놀아요?
 유아13 : 뭐하고 놀아요?
 유아14 : 장애인 복지관은 어디에 있어요?
 교 사 : 글세, 모래내 시장 안에 있다고 들었는데 선생님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
 유아15 : 거기는 진짜 장애인들이 있죠?
 유아들 : 우리가 한번 가 봐요.
 교 사 : 너희들이 가고 싶다면 선생님이 장애인 복지관에 전화해서 여쭙어볼게(그날 오후, 교사가 장애인 복지관에 연락하여 방문할 것을 요청하였고, 허가를 받아 일정을 잡은 후 견학하기로 하였다.)
 교 사 : 장애인 복지관에 연락해 봤는데, 너희들이 와도 좋다고 하셨어. 거기서 너희들은 무엇을 알고 싶니?
 유아15 : 다른 장애인들이 있나 볼꺼예요.
 유아12 : 점자 그림책이 어떻게 생겼나 볼꺼예요
 교 사 : 점자 그림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 궁금하니?
 유아12 : 주희가 복지관에 갈 때 그림책을 만들어 선물하려고요.
 교 사 : 그러면, 모두 궁금한 것이 많으니까 자기가 조사할 것을 한가지씩 적어와서, 장애인 복지관에 갈 때 알아보도록 하자.
 결국 유아12는 장애인 복지관 견학시 점자책에 관심을 보였고, 점자 프린트물을 얻어와 그것으로 실험집단 유아들이 주희에게 선물할 점자 그림책 2권을 만들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연있는 인형(persona-doll)을 활용한 반편견교육이 비장애유아의 장애수용태도 증진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아봄으로써 반편견 교육매체로서 사연있는 인형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해 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에 대하여 각각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집단간 장애 수용태도의 차이

첫째, 반편견교육에 있어서 사연있는 인형(persona-doll)을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 고정관념 및 편견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적극적인 방법이며 좋은 매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사연있는 인형을 활용한 반편견 교육을 받은 실험집단 유아들의 장애수용태도가 통제집단 유아들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고, 하위영역별로도 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Derman-Sparks와 그의 동료들(1989)이 사연있는 인형을 반편견교육에 사용함으로써 편견에 대한 태도를 발달시키고 편견에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다는 주장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연있는 인형이 유아들에게 감정이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조망해 보고 인형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바른 정보를 주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및 태도를 발달시키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반편견 교육방법에 있어서 사연있는 인형(persona-doll)은 직접자료로서 좋은 매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둘째, 유아들의 개방적 질문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상당부분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

전검사 결과에서 '장애는 전염된다', '장애인은 무능하다', '장애인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사후검사에서는 '장애는 옮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장애만 빼고는 똑같은 사람이에요'라고 반응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친구와의 상호작용 의도에서도 사전검사 결과에서는 '보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걷지 못하니까' 놀 수 없다고 반응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수화를 하면서 놀겠어요', '점자책을 빌려다 주고 놀아요',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놀게요'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하거나 장애친구의 불편함을 도와 주면서 놀겠다는 반응이 증가하였다. 이는 유아들이 사연있는 인형과의 놀이를 통해 인형의 사연에 동기화되고 인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알게되고 그들에 대한 이해와 수용적 태도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때문으로 추측된다.

셋째, 유아 중에는 사연있는 인형에 대해 자신의 삶이 투영된다고 느껴 더욱 강한 애착을 느끼고 인형이 처한 불공평한 입장을 지지하는 반응이 나타났다. 개방적 질문에 대한 반응에서 예를 들어 사후검사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와 같이 놀면 너도 그렇게 될꺼라고 생각하니?'라는 질문에 '웁지 않아요. 나는 아토피성 피부지만 친구가 같이 놀아도 아토피성 피부가 웁지 않아요'와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친구가 있다면 그 아이와 함께 놀겠니?'라는 질문에서 '그 아이도 나처럼 친구가 없어 심심하니까 같이 놀아줄꺼예요'라는 반응을 볼 수 있었

다. 이는 사연있는 인형이 다른 교수매체보다 '동일시'대상으로 더 매력적이고 편안한 감정 이입을 통해 자신을 투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 성에 따른 장애수용태도의 차이

사연있는 인형은 유치원 현장에서 반편견교육을 계획할 때 성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교수매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사연있는 인형을 활용한 반편견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 내 성에 따른 장애수용태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여아들이 인형놀이를 남아들보다 더 선호함으로 사연있는 인형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으나 선입견 자체가 어른들의 편견적 사고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인형놀이, 가족놀이에 있어서 남아들이 인형을 다루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부자유스러워 하는 것은 매체 자체보다는 인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역할 즉, 아기에게 젖주기, 아기 업어주기 등 아기를 돌보는 대상이 여자라는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과 주변환경 특히 부모로부터 강화받은 성형화(性形化)된 행동에서 기인된다고 추측된다.

단, 하위항목 중, 시각장애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여아들 중 몇 명이 시각장애 인형에게 점자동화책을 만들어 주는 과정에서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 더 깊은 애착이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3. 인형과의 반응 및 자발적 놀이 유형

사연있는 인형은 유아들에게 있어 강한 흥미

와 애착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매력적인 매체라 할 수 있다. 인형이 투입된 초기에는 유아들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 단지 인형일 뿐이라는 생각에 상호작용에 있어 어색해하거나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몰라 어려움을 보였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놀이방법을 발전시켜 가면서 인형의 사연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겨 인형의 불편함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며 인형에 대하여 애착을 나타내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특별히 사연있는 인형처럼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시련을 안고 있는 유아들은 마치 자신의 모습이 인형에 투영된 것으로 여겨 같이 아파하고 지지하며 더욱 강한 애착을 갖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실험이 끝나고 인형을 반입하게 되었을 때 유아들은 몹시 섭섭해하며 선물을 만들어 주고, 편지를 쓰고, 언제 다시 초대할 수 있는지 물으며 안타까워했다. 이러한 결과는 사연있는 인형이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반편견적 태도를 발달시키고 편견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매체이며 직접경험을 제공하는 도구라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사연있는 인형(persona-doll)은 유아들의 인생경험 및 그와 유사한 실제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아들의 강한 애착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이연승, 1999) 인형과의 감정이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확인하고 감정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인형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도덕적 판단력과 비판적 사고를 촉진시켜 학습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바로잡아 줌으로서 친사회적 행동 및 반편견적 태도를 발달시키는 효과적인 교수매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논의에 따른 제한점과 후속 되어

야 할 연구과제들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반편견 교육방법에 있어서 사연있는 인형(persona-doll)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과 교육적 효과를 검증해 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따라서 장애수용태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사연있는 인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의 접촉, 혹은 장애정도에 따라 비장애유아들의 반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사연있는 인형(persona-doll)을 활용한 반편견교육 프로그램 외의 변인들, 즉 교사의 신념, 부모의 양육태도 및 가정환경, 장애인과의 접촉유무 등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외 변인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 셋째, 사연있는 인형(persona-doll)의 선정과정에서 지체장애인형은 유아들 크기의 인형에 알맞는 휠체어를 구할 수 없어 장애인 협회에서 제작한 소형 휠체어에 맞는 인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도구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연있는 인형(persona-doll)을 활용한 반편견교육이 확대되고 유치원 현장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첫째, 반편견 교육방법에서 사연있는 인형을 사용할 때 교수매체의 적절성을 위하여 인형의 사연에 따라 혹은 인형의 크기, 모습에 따라

유아들의 반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좀 더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사연있는 인형에 대한 반응과 놀이의 특징을 관찰 비교함으로써 각 연령에 적절한 반편견 주제는 무엇인가? 교사는 유아들의 놀이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가? 각 연령에 알맞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하여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반편견 주제 중, 장애우소에 국한하였으나 이후로는 반편견교육의 모든 영역에 사연있는 인형의 적용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시도되어야겠으며, 단기간의 시도보다는 반편견 교육과정의 내용을 일년동안 생활 주제에 통합 운영하거나 유치원 수학, 3년간의 연계를 통한 종단적 연구들이 보다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넷째, 반편견교육에 있어 사연있는 인형의 활용을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연을 담을 수 있는 인형이 필요하다. 다양한 연령과 외모, 다양한 직업과 계층, 다양한 인종과 의상, 다양한 장애, 다양한 가족구성 등을 보여주는 인형의 제작과 보급을 위해 유아관련 교구회사, 인형 제작사 등에 건의할 수 있는 토대와 대학 인형동아리, 인형극회 등과의 교류통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김현정(1997). 일반유아를 위한 장애이해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김혜선(1999). 반편견 교육과정의 접근. 어린이교육 (대한어린이 교육협회), 창간호, 28-47.

노은미(1996). 장애유아에 대한 비장애 유아의 긍정적 태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송현미(1998). 장애유아와 일반유아의 협동놀이 TV

- 유아프로그램이 일반유아의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이광규(1998). 반편견 교육과정을 통한 인간교육.(출처)한국어린이 육영회 편, 반편견 교육과정을 통한 인간교육(pp.3-14). 서울 : 한국어린이육영회.
- 이연승(1999). 반편견 교육에 사연 있는 인형 사용하기. 어린이 교육 (대한어린이교육협회), 창간호, 113-117.
- 이장순(1992). 장애인의 수기가 특수학급 아동에 대한 일반학급 아동의 태도변화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이현숙(1999). 동화활용 프로그램이 장애유아에 대한 비장애유아의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정선화(1992). 정신지체 유아에 대한 일반 유아의 태도 개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하승연(1996). 장애아에 대한 태도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Derman-Sparks, L., & A. B. C. Task Force(1989). *Anti-bias curriculum : Tools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 Washington, DC : NAEYC.
- Derman-Sparks, L., & A. B. C. Task Force(1999). 반편견 교육과정 : 어린이에게 대응능력을 길러주는 도구(이경우 · 이은화 공역). 서울 : 창지사. (원서 1989 출판).
- Esposito, B. G. & Peach, W. J.(1983). Changing attitudes of preschool children toward handicapped persons. *Exceptional Children*, 49(4), 361-363.
- Esposito, B. G. & Reed, T. M.(1986). The effect of contact with handicapped persons on young children's attitudes. *Exceptional Children*, 53, 224-229.
- Fortini, M. E.(1987).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 students with handicaps their nonhandicapped peers.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7, 78-84.
- Gottlieb,J., Corman, L. & Curci, R.(1986). Attitudes toward mentally retarde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Deficiency*, 80, 72-80.
- Guralnick, K. J. & Groom, J. M(1987). The peer relations of mildly delayed and nonhandicapped preschool children in mainstream playgroups. *Exceptional Children*, 47, 90-98.
- Peterson, N.(1982). Social integration of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Preschool Special Education*, 79, 412-416.
- Whitney(1999). *Kids like us : Using persona dolls in the classroom*. MN : Redleaf. in Press.